

푸른 5월, 푸른 마음, 푸른 책

어린이도서관 운영자들이 추천하는 권장도서

한상수

푸른꿈 어린이도서관 관장, 아침독서추진본부 본부장

01 《지구를 구하는 경제책》

강수돌 지음 | 봄나무

경제란 무엇이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는 책. 어린이들에게 경제를 돈벌이로만 보지 않고,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'살림살이'로 보자고 애기한다. 인생의 목표를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.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경제임을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느끼면 좋겠다. 양보와 배려가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살림살이임을.



04 《헨쇼 선생님께》

비벌리 클리어리 글 | 선우미정 옮김 | 보림

05 《펄루 세상을 바꾸다》

에이비 글 | 고은광순 옮김 | 주니어김영사

06 《니안짱》

야스코토 스예코 글 | 조영경 옮김 | 산하

07 《우리 애길 들려줄게》

시벨라 월크스 지음 | 윤길순 옮김 | 디딤돌

08 《역사야, 나오너라》

남이은홍 글 · 그림 | 푸른숲

09 《광용아, 햄버거 맛있니?》

다음을지키는사람들 지음 | 조선은 · 탁종명 그림 | 리즈

10 《십시일反》

국가인권위원회 기획 | 박재동 외 그림 | 창비

는 주제를 재미있는 글과 자유분방한 그림으로 잘 풀어 아이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.

02 《어깨동무 내동무》

남성훈 글 · 그림 | 문학동네어린이

이 책에는 어린 시절 우리들을 참 즐겁게 했던 많은 놀이들이 담겨있다. 그래서 책을 보면 참 행복하다. 한편 이런 추억을 갖지 못할 우리 아이들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다. 너무나 분주하고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더불어 노는 즐거운 놀이를 돌려주고 싶다. 이 책에 담긴 놀이의 주인은 바로 아이들이니까 말이다.



김소연

어린이도서관 '웃는책' 관장

01 《어깨동무 내 동무》

남성훈 지음 | 문학동네어린이

놀이문화가 꼬물꼬물 담겨 있는 골목 이야기. 골목이란 집과 집이 이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사는 이들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.



02 《기적의 시간》

로버트 맥클로스키 글 그림 | 김서정 옮김 | 문지어린이

바다와 해변에서 벌어지는 폭풍우의 시간들. 그 시간을 다 겪으면 얻게 되는 자연의 섭리들이 낮은 숨결로 수놓아져 있는 그림책. 이 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자연의 숨결에 귀 기울이는 시인이 됩니다.



03 《시민 의식 만세!》

살비 자라르데 글 | 푸이그 로사도 그림 | 이호숙 옮김 | 초록개구리

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. 어린이들이 남과 더불어 살면서 터득해야 할 덕목을 우화와 그림으로 보여준다. 자칫 딱딱할 수 있



03 《새가 되고 싶어》

한병호 글·그림 | 김주성 꾸밈 | 캐릭터플랜



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를 꿈꾸는 책. 상상에 상상이 보태어져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는 느낌을 한가득 남겨주는 책입니다.

04 《아빠가 보고 싶어》

김중석 글·그림 | 보림

05 《우리는 별거숭이 화가》

문승연 글 | 이수지 그림 | 돌베개어린이

06 《참새》

조혜란 글·그림 | 사계절

07 《동생》

조은 글 | 김혜진 그림 | 푸른숲

08 《소년은 자란다》

채만식 글 | 박상률 엮음 | 김세현 그림 | 진달래산천

09 《나비 따라 나선 아이 나비가 되고》

이가영 지음 | 뜨인돌

10 《세계의 동화》

크리스치안 슈트리히 엮음 | 타트야나 하우프트만 그림 | 김재혁 옮김 | 현대문학

김소희

어린이도서관 '책읽는 엄마, 책읽는 아이' 관장

01 《돼지책》

앤서니 브라운 글·그림 | 웅진닷컴

앤서니 브라운은 '밝고 둥글고 귀여워야 할 것 같은' 그림책에 대한 편견을 깨는 작가이다. 또 가족 문제를 고민한 책들이 많다. 어렸을 적 보았던 영화 <킹콩>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그는 주로 고릴라를 자기 책의 주인공으로 삼았다.



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은 《고릴라》 《동물원》과 《미술관에 간 율리》 등이 그랬다. 그런가하면 한쪽 부모의 외도로 서먹해진 가족의 나들이를 다룬 《행복한 미술관》과 엄마 아빠의 천둥 같은 부부싸움 소리를 숨은 배경으로 한 《숲속으로》, 티격태격하는 오누이의 《터널》, 그리고 《돼지책》 등 가족문제를 그린 작품들도 유명하다. 그중 《돼지책》은 아빠들이 읽어야 할 것 같다.

02 《엄마 마중》

이태준 글 | 김동성 그림 | 소년한길

1938년 발표된 이태준의 동화. 동시에 가까울 정도로 짧은 글이지만, 책장을 넘길 때마다 울림이 더 크게 번지는 애뜻한 책이다. 소년한길에서 새로 펴낸 엄마 마중은 그림 때문에 더 특별해졌다. 김동성의 따뜻하고 단정한 채색수묵화는 어린이책에서 그림이 담당한 몫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는다. 1930년대 종로 겨울거리, 까까머리 까만 교복의 학생들, 아기를 업고 있는 누나, 귀를 덮는 방한모를 쓴 너댓살된 아이 등 담백한 그림으로 보여준다.



03 《구름빵》

백희나 글·그림 | 한솔교육

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으면 구름처럼 떠오른다는, 기분 좋은 판타지이다. 과학도 논리도 합리성도 그 어떤 사실관계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황당한 줄거리이다. 그러나 가벼운 구름처럼 정말 두둥실 떠오를 것 같은 산뜻한 이야기다. 고양이 가족과 모든 소품을 직접 만들어 세팅한 후 사진을 찍은, 콜라주를 이용한 반입체 기법으로 '빛그림책'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다. 2005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도서전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받은 작품.



04 《금붕어 두 마리와 아빠를 바꾼 날》

닐 게이먼 글 | 데이브 맥킨 그림 | 소금창고

05 《동물 아빠들》

스니드 칼러드 글 | 스티브 젠킨스 그림 | 마루벌

06 《아빠와 함께 피자 놀이를》

윌리엄 스타이그 글, 그림 | 보림

07 《지하철을 타고서》

고대영 글 | 김영진 그림 | 길벗어린이

08 《진순이 엄마》

전향숙 글 | 오승민 그림 | 느림보

09 《오른발 왼발》

토미 드 파올라 글, 그림 | 비룡소

10 《내가 물려 받은 것들》

프레드릭 베르트랑 글·그림 | 중앙출판사

취재·정리_송보경 기자